

한반도 동향

2019년 3월

I. 주요 정세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2. 미국 3. 중국 4. 일본

III.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일지
2. 북한언론 주요 사설 및 논평

편집책임 이무철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작성 자 김혜민 북한연구실 연구원

서양아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아영 기획조정실 연구원

김소연 기획조정실 연구원

윤훈희 기획조정실 연구원

탁민지 인도협력연구실 연구원

I

주요 정세

3.1.(금)

리용호 북한 외무상, 긴급 심야 기자회견 개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에 해당하는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이 기본적으로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이 맞다. 북한이 영변에서 무엇을 할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았다” (필리핀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 3.1절 100주년 기념식 참석 및 기념사 연설

“우리가 주도하는 ‘신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 “‘신한반도체제’는 대립과 갈등을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 공동체이자 이념과 진영의 시대를 끝낸 새로운 경제협력 공동체”,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여 양국 간 대화를 통한 완전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

북한-베트남 정상회담 개최

2020년 북한-베트남 수교 70주년을 앞두고 개최된 회담으로, 사회주의 국가로서 양국 간의 전통적인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고 군사·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방안 논의

북한 조선중앙통신, 북미정상회담 결렬 언급 없이 양측이 생산적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

3.2.(토)

김정은 국무위원장, 베트남 일정 종료 후 평양 향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아무런 경제적 미래도 갖지 못할 것” (미국보수진영 연례행사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3.3.(일)

트럼프 대통령,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아끼려는 것” (트위터)

한미 국방 당국,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 ‘독수리훈련(FE)’을 2019년 부터 종료” 발표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다.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할 결정을 하라고 요구했다. 김정은에게 빅딜을 수용하도록 설득 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 (폭스뉴스 인터뷰)

3.4.(월)

문재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주재
“북미, 대화 이탈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급선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수주 내 평양에 실무팀을 보내기를 희망한다” (미국 아이오와주 농장연합 ‘아이오와 팜 뷰로’ 방문 자리)

3.5.(화)

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중 없이 60시간 만에 평양 도착

조명균 통일부 장관,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한 단계적 접근방법을 구상하고 있으며, 재개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 (더불어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 주최 세미나 특강)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한 영변 원자로는 작년 말부터 가동 중단, 현재 재처리시설 가동 징후 없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해서는 한미 군사정보 당국이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고, 면밀하게 감시체계 가동 중”,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일부 복구”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미

북미정상회담 결과 공유 및 한미 간 후속 대응전략 조율 예정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이 전면적 핵 폐기를 하지 않으면 제재 강화 검토” (‘루돌프 투나잇’ 프로그램 출연)

미국 상원, 새 대북제재 법안 “오토 웨이버 북한 관련 은행업무 제한 법안” 발의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 개인의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 차단

3.6.(수)

정부, 5월 말 민·관·군이 참여하는 ‘을지태극연습’ 최초 실시 발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떼어내고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연습’과 통합해 시행하는 것으로, UFG 연습은 43년만에 폐지
(3대 한미연합훈련(키리졸브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모두 폐지)

3.6.(수)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핵심 미사일 발사장 복구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사실이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실망하게 될 것”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회동, 2차 북미정상 회담 결과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논의(미국 워싱턴 D.C.)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 “북한 식량 생산량이 10년 만에 최저치인 495만t 기록, 식량사정 크게 악화”

3.8.(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 발표

3월 10일부터 6박 7일 동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국빈방문, 이는 신남방정책에 더욱 무게를 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

유엔 안보리, 인도적 교류를 위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3.9.(토)

김정은 국무위원장,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 임무는 없다”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 서한)

3.10.(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북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눈 한 번 깜빡임 없이 정확하게 지켜보고 있다. 지렛대는 북한이 아니라 미국에 있다” (ABC방송, 폭스뉴스 인터뷰)

3.11.(월)

말레이시아 검찰,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복형 김정남 살해혐의자 1인 전격 석방

또다른 혐의자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2020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출전 및 2032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준비”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 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의견은 일치”, “외교는 여전히 살아있다” (핵정책 콘퍼런스 좌담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부분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을 뿐 영변 핵단지는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온전히 남아 있다”고 밝힘.

3.13.(수)

외교부,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를 통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 (2019년 업무계획 발표)

3.13.(수)

미국 국무부,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에 의한 지독한 인권침해’라는 표현 삭제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보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한미 연합훈련 축소됐지만 방위태세에는 문제 없어”

3.14.(목)

한미 워킹그룹, 첫 대면회의 개최(미국 워싱턴 D.C.)

북한 비핵화 문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와 관련된 미국 독자제재 면제 등 논의

3.15.(금)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대북물자에 미국 독자제재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 (정례브리핑)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미국과의 협상 중단 고려”,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계속할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정에 달렸고, 단기간 내에 결단내릴 것” (평양 기자회견)

3.16.(토)

청와대, “어떤 상황에서도 북미협상이 재개되도록 우리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캄보디아 현지 브리핑)

3.17.(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들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 (라디오방송 인터뷰)

3.18.(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대북특사 및 남북정상회담 등 조속한 대화재개를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경두 국방부 장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을 미사일 발사 활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선부른 판단” (국회 국방위원회)

커스텐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북한의 사이버 범죄를 지켜보고 있으며, 이같은 범죄에는 대가가 따를 것” (국가안보 관련 토론회)

3.19.(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 방려

3.20.(수)

이낙연 국무총리,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응답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 (외교·통일·안보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3.21.(목)

조명균 통일부 장관, “대북특사 파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의 입장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미동맹 간에 이견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한미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기우”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중국 해운회사에 대한 독자 제재 발표

하노이 회담 결렬 뒤 첫 대북제재

3.22.(금)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 전원 철수

3.23.(토)

트럼프 대통령, 대북 추가제재 철회 지시

3.25.(월)

북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일부 인원 복귀 조치

3.26.(화)

스페인 법원,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침입자, 미국 FBI와 접촉”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트럼프 대통령, 하노이 회담서 스냅백 전제로 제재 완화 시사”
(2월 15일자 평양 기자회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찰스 쿠퍼먼 국가안보 보좌관 회동 (미국 워싱턴 D.C.)

3.27.(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일시적으로 한미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했으나, 이러한 기회의 창을 무한정 열어둘 수는 없다. 외교적 노력이 결실을 맺으리라는 희망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으며,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프레스센터 강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 “그 동안 북한에 여러 번 속았다,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 (미국 상원 외교위 인사청문회)

3.29.(금)

청와대,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초청으로 방미(4/10~11)

트럼프 대통령,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추가제재는 불필요”
(마러라고 리조트 기자회견)

강경화 외교부 장관-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회동, ‘포스트 하노이’ 구상 조율
(미국 워싱턴 D.C.)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회동, 북미대화 재개 방법 협의 (미국 워싱턴 D.C.)

통일부, 경의선·동해선 철도 복측 구간 남북공동조사 결과 국회 보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 복측 구간은 시설 및 시스템 전반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고, 경의선 고속도로(개성-평양)도 훼손 심각

국가정보원,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공사 대부분 완료,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정상 가동 중” (국회 정보위원회)

3.31.(일)

북한 외무성, “스페인 대사관 침입사건은 엄중한 테러행위, 미국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에 대하여는 주시 중”

II

주요국 연구동향

1. 한국

■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 『온라인시리즈』, 제25권 1호, 통일연구원, 2019.3.7.)

-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 채택이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빅딜’ 안의 미국과 단계적 접근법의 북한 간 입장 차이가 뚜렷했으나 이러한 표면적 견해차가 합의 결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음.
 - 미국의 협상 전략과 국내정치적 문제가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에 준비된 잠정 합의문이 있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근거
- 이러한 해석은 빅딜과 단계적 접근이라는 양자의 표면적 견해차가 향후 협상에서 상당히 좁혀질 수 있다는 전망을 가능하게 함.
 - 더욱이 이번 회담 준비 과정에서 양자는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공감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지속은 향후 협상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
- 향후 협상 재개의 가능성이 높지만, 타결을 낙관하기는 어려움.
 -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와 타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
 - 특히 대북·대미 특사 파견 그리고 남북 및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면서, 북미 양자의 의중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중재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351&category=53&thisPage=1&searchField=&searchText=&biblioid=1512255>

■ 유럽연합(EU)은 하노이 북미정상 회담에 대해 왜 침묵하였을까?

(도종윤, 『JPI PeaceNet』, 2019-09, 제주평화연구원, 2019.3.15.)

- 한반도 주변국들이 하노이 회담에 대한 자국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유럽연합은 지난 6.12회담 때와 달리 별다른 성명이나 논평이 없었음.
 - 유럽 일부 언론에서 언급이 있기는 했으나 유럽연합, 유럽 각국의 외무성 그리고 유럽의 주요 언론들도 침묵

- EU의 성명이 부재했던 이유
 - 하노이 회담 개최 전에 미국이 유럽과 한반도 전략을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못함.
 -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26일, 카슈미르 공습)이라는 빅 이슈가 발생
 - 유럽은 위치만으로 간여자의 지위를 가지는 한반도 주변국과 달리 이슈가 있어야 역할이 발생
- EU원헬안보회담에서 모게리니 EU외교대표가 발언한 바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는 대량살상무기(이슈)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방법) 차원에서 유럽의 관심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EU에 적절하고 타당한 역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UN등 다자적 기구를 통한 접근이 보이지 않음.
 - 한국은 양자관계로서 미국의 중요성을 유지하되, 지구적 차원의 안보 방향을 읽을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rchive&id=570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김인태, 『ISSUE BRIEF』, 통권 116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9.3.22.)

- 제14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았음.
 - 1948년 8월 정권출범을 위한 제1기 선거부터 제14기까지 이어지는 70여년의 정권 사상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미선출된 유일한 사례
 - 이는 ‘정상국가화’를 표방하는 차원에서 김정은의 입후보 ‘사양’ 형식의 ‘불출마’이거나, ‘수령중심’의 유일체제 공고화를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음.
- 14기 선거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당-국가 권력구조의 안정성 강화임.
 - 김정각, 박영식을 제외하고는 당-국가 지도부의 인적변동은 거의 없었음.
 - 이는 수령중심의 권력구조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책방향에도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선거를 통해 내각을 포함한 정책 추진 구조를 보완하고, 과학교육 발전방향 강조
 - 대남·대외분야는 현직위주 중요인물 유임 및 신규 임명(리선권 조평통위원장)
 - 군수공업분야는 대표인물 유임 및 충원(홍영칠, 장창하, 왕창욱): 김정은 시대 이후 핵과 군수공업부문의 높아진 지위와 역할 유추 가능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관전 포인트
 - 병진노선 승리 선포와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 제시 1돌을 맞이하여 연관된 의제 상정 여부: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제전략방향 등 현실적인 의제상정 가능성 있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미선출에 따른 권력구조 변화 여부

※ 원문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과 역량개발 수요

(임을출, 『국가전략』, 제25권 1호, 세종연구소, 2019.2.28.)

- 북한 측의 경제발전전략과 개발수요 등을 사실적으로 독해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자료들을 토대로 최고지도자의 경제건설을 위한 전략적 구상들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검토
 - 북한 노동당의 경제정책들을 소개하고, 당의 노선과 전략들을 관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는 학술지 <경제연구(2012~2018년)> 8년치에 대한 문헌독해를 통해 개발수요와 집행역량 등을 추출
- 김정은 정권에 필요한 역량은 △거시 및 미시경제관리 역량, △과학기술분야 개발·관리역량, △기업경영 및 경제개발구 개발관리역량 등
 - 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은 교육분야 투자를 통한 노동의 질적 향상, 지식경제에 기반한 경제구조의 구축을 중시하고 있음.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역량 강화에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향후 역량강화 부문에서 남북협력이 추진될 경우 북한은 선진 지식과 역량을 배우더라도 북한 실정에 맞게 변형하고자 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있음.
 - 북한은 외부의 지식과 역량을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항상 환경과 조건에 맞게 변형해서 수용해왔고, 또 실제 그 정도의 실력은 갖추고 있음.
 - 북한 경제분야 관료들과 학자들은 국제사회의 제재 아래에서도 국제기구·NGO들과 역량강화 분야 협력을 해온 사례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남북협력 추진 시에 필요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어야 함.

■ 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전재성,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9.3.31.)

-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 이래 북미 핵협상이 진전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짐.
 - 북핵 문제의 근원은 북한의 주권적 지위와 체제의 안전이라는 국제정치문제임.
 - 냉전을 거쳐 미국 단극체제, 그리고 미중 경쟁체제라는 체제요인이 변화하면서 북핵 문제 역시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음.
 -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나가며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
- 미국 내부에서는 현재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자유주의 질서로 보는 자유주의자들과 세력균형의 기반 위에서 힘의 우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분석과 처방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러나 양자 모두 미국 주도 질서가 구 제국주의 질서로부터 진화되어 온 것이며, 특히 비서구 지역에 대한 위계 설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
-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룰 수는 있지만 진정한 북미 전략적 협력관계, 더 나아가 북한의 정상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한국은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 바람직한 지역질서의 미래를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2.28.	북한개발협력을 위한 삼각협력 모색: 북한의 개발수요와 주축국 선정을 중심으로	손혁상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28집 1호, pp. 307~339.
2.28.	북한의 반미선전선동과 신천박물관에 대하여	김옥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한국정치연구』 제28권 1호, pp. 341~366.
2.28.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과 韓美의 '비핵화 외교':북핵 장기화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전략의 필요성	전성훈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제25권 1호, pp. 91~120.
3.1	2차 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미국의 인식	우정엽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rd/bd_news/1/egolist.php?bd=1
3.1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중국의 시각	정재흥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rd/bd_news/1/egolist.php?bd=1
3.4.	2차 미북 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최강,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2%ec%b0%a8-%eb%af%b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ed%8f%89%ea%b0%80-%eb%b0%8f-%ed%96%a5%ed%9b%84-%ec%a0%84%eb%a7%9d/
3.4.	나쁜 거래보다는 무(無)거래가 낫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b%82%98%ec%81%9c-%ea%b1%b0%eb%9e%98%eb%b3%b4%eb%8b%a4%eb%8a%94-%eb%ac%b4%e7%84%a1%ea%b1%b0%eb%9e%98%ea%b0%80-%eb%82%ab%eb%8b%a4/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3.4.	성공적인 3차 북미정상회담이 되려면: 북한식 계산법과 미국식 계산법의 수렴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main/publication_01_view.asp?intSeq=9954&board=kor_report&keyword_option=&keyword=&more=
3.4.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 무산과 향후 과제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List.do?ctgrySe=02
3.4.	너무 다른 북미의 셈법을 고민해야	문용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http://ifes.kyungnam.ac.kr/kor/PUB/PUB_0501V.aspx?code=FRM190304_0001
3.5.	진실의 순간이 보여준 北 협상전술의 민낯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c%a7%84%ec%8b%a4%ec%9d%98-%ec%88%9c%ea%b0%84%ec%9d%b4-%eb%b3%b4%ec%97%ac%ec%a4%80-%e5%8c%97-%ed%98%91%ec%83%81%ec%a0%84%ec%88%a0%ec%9d%98-%eb%af%bc%eb%82%af/
3.5.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과제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3.6.	북·미 정상회담 미합의 배경과 함의: 비핵화와 제재 해제 간 교환거래의 난제	김진아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382&idx=1805&depth=4&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3.8.	북미정상회담 개최 경과와 북한 입장의 분석	이중구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671&depth=2&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3.8.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일본의 평가	송화섭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669&depth=2&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3.8.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중국의 평가	이상국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668&depth=2&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3.8.	제2차 미북정상회담 결렬에 대한 일본의 반응 및 평가	이면우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d/bd_news/1/egolist.php?bd=1
3.8.	제2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평가와 정책 전망	권보람	국방연구원	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2184&idx=667&depth=2&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3.12.	북핵 대책 '원점 재검토' 失機 말아야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b5-%eb%8c%80%ec%b1%85-%ec%9b%90%ec%a0%90-%ec%9e%ac%ea%b2%80%ed%86%a0-%e5%a4%b1%e6%a9%9f-%eb%a7%90%ec%95%84%ec%95%bc/
3.12.	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 내 반응: 공통성과 다양성	김연호	제주평화연구원	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rchive&id=5700
3.13.	북핵대응체제로 나라의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d%95%b5%eb%8c%80%ec%9d%91%ec%b2%b4%ec%a0%9c%eb%a1%9c-%eb%82%98%eb%9d%bc%ec%9d%98-%ec%8b%9c%ec%8a%a4%ed%85%9c%ec%9d%84-%ea%b0%9c%ec%a1%b0%ed%95%b4%ec%95%bc-%ed%95%9c%eb%8b%a4/
3.14.	중국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비핵화에 대한 입장	유현정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3.15.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효과성 측정: 비핵화 협상과 관계를 중심으로	이상숙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ifans/kor/act/ActivityList.do?ctgrySe=06#
3.18.	하노이 정상회담의 재구성: 미국의 인식과 접근	최강,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d%95%98%eb%85%b8%ec%9d%b4-%ec%a0%95%ec%83%81%ed%9a%8c%eb%8b%b4%ec%9d%98-%ec%9e%ac%ea%b5%ac%ec%84%b1-%eb%af%b8%ea%b5%ad%ec%9d%98-%ec%9d%b8%ec%8b%9d%ea%b3%bc-%ec%a0%91%ea%b7%bc/
3.18.	하노이 이후 해야 할 5가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d%95%98%eb%85%b8%ec%9d%b4-%ec%9d%b4%ed%9b%84-%ed%95%b4%ec%95%bc-%ed%95%a0-5%ea%b0%80%ec%a7%80/
3.18.	남북관계 변화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구상	강민조, 임용호	국토연구원	http://www.krihs.re.kr/issue/cbriefList.do?pageIndex=1&q_idx=29800
3.20.	북의 협박 재개, 한·미 이간 노린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b%b6%81%ec%9d%98-%ed%98%91%eb%b0%95-%ec%9e%ac%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ea%b0%9c-%ed%95%9c%e2%80%a2%eb%af%b8-%ec%9d%b4%ea%b0%84-%eb%85%b8%eb%a6%b0%eb%8b%a4/
3.21.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	장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3.21.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breifing&ntId=203102&pageIndex=2
3.2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re.kr/contents/publications_ib.htm
3.27.	INF레짐의 위기와 우리의 대응	정은숙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rd/bd_news/1/egolist.php?bd=3
3.28.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향후 전망	우정엽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board/bd_news/1/egolist.php?bd=3
3.28.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전망	김현욱	외교안보연구소	http://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List.do;jsessionid=jOMdn4fKHzPdXBuJK12SyE+g.public12?menuCl=P07
3.28.	발전 신기술을 적용한 북한 발전설비 현대화 남북협력 방안	신정수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한반도 신(新)복합물류체계 구축 방향과 과제	이성우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북한의 과학기술·ICT 정책과 추진 동향	이춘근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경기북부 접경지역 균형발전 종합 발전구상 및 실천방안 연구	강민조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이석기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중 협력방안	정은이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3.28.	북한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최장호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북한의 석유류 교역과 대북제재의 영향력 분석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북미 비핵화 협상과 현실적 남북경협 구상	김석진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새로운 한반도 정세와 남북 농업협력	김영훈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경협	양문수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결과 향후 전망	임수호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새로운 한반도 정세와 남북경협 방향	임을출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북한개발의 국제화, 그리고 남북경협	장형수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2018년도 북중무역과 제재효과	정형곤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한반도 환경변화와 남북경협의 원칙	조남훈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신한반도 체제, 평화경제론 그리고 남북경협	최용환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28.	하노이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남북경협	홍순직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forecast/forecasts_north.jsp?pub_no=16084&pg=1&tema=K&pp=10
3.31.	북한 행정체의 변동(2009-2017) : '전면적인 내부적 균형'의 행정체 형성	이종주	한국국제정치 학회	『국제정치논총』 제59집 1호, pp. 87~126.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3.31.	북한의 대외·대남 전략 구상의 특징과 결정요인: 북핵문제와 강압전략을 중심으로	정성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 pp. 1~31.
3.31.	비핵화 모델의 사례와 교훈: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모델’은 성공 가능한가?	김근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 pp. 33~66.
3.31.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황지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 pp. 67~94.
3.31.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임수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 pp. 127~156.
3.31.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전략과 역할	이동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 pp. 157~192.
3.31.	한반도 비핵·평화프로세스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	박영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5권 1호, pp. 193~221.

2. 미국

■ The Hanoi Summit – We Asked 80 Experts What Happens Next in U.S.–North Korea Relation

(2019.3.12., Harry J. Kazianis, *The National Interest*)

- 내셔널인테레스트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관계’에 대한 전문가 80인의 글을 게재함.
- 더그 밴도 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로날드 레이건 미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관은 레이카비크 회담에서 핵무기 제거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결국 군축에 합의하고 냉전을 종식함.
 - 핵과 제재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일은 비현실적인 제안이며 이러한 과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북미관계는 파멸에 이르게 될 수 있음.
 - 미국은 북한이 요청했듯이 북한 여행 금지조항 해지 등 양국관계를 개선하고, 연락사무소 개설을 통한 소통 강화 및 종전선언을 해야 하며, 이후 영변 제안을 받아들이고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하는 협상을 해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수십 년간 한반도에서의 냉전을 끝낼 수 있음.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면, 이제 말과 행동을 일치시킬 때임.
 -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면 북미관계는 매우 어려워질 것임.
 -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시 미국은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며 결국에는 핵을 막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하라는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핵 생산을 중단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이 동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
 - 북한은 IAEA 검열을 통해 모든 핵심 핵무기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생산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있음.
 - 미국은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선언을 원하고 있으나, 북한은 핵무기 생산시설 목록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임. 북한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검열이 필요하며, 이후 일부 제재 완화 및 기타 대응조치가 가능함.

- 테드 갈렌 카펜터 카토연구소 선임연구원: 미국의 전반적인 목표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미국이 북한의 공격 위협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변화를 반영해야 함.
 -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지속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신호이나, 미국은 더 제한적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가져야 함.
 - 북한이 진정으로 영변핵시설의 폐쇄의 대가로 일부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를 받아들여야 하며, 평화선언과 대사관 설립과 같은 조치를 차기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함.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print/blog/korea-watch/hanoi-summit-%E2%80%93-we-asked-80-experts-what-happens-next-us-north-korea-relation-46902>

■ The U.S.-ROK Alliance and Policy Coordination Toward China (2019.3.19., Scott A. Snyder, CFR)

- 수십 년간 한미동맹은 북한으로 인한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한미 지도자들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양국은 중국과 관련된 국가 정책과 전략에 관한 대화, 조정 및 협력을 강화를 위한 정례화 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함.
- 한국에서의 중국 역할은 북한 핵 문제 측면에 맞춰서 있었으나, 한미 모두에게 중국의 경제, 정치, 군사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중국을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크고 정교한 군사력, 그리고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배에 대한 야망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군사력을 활용하는 능력은 크게 확대되었으며, 중국의 인민해방군(PLA)은 수십 년간 막대한 투자를 받아 모든 군사 영역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한국과 미국은 중국의 외교 정책과 안보 전략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한국은 미국과 밀접하고 중요한 외교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임.
-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한미동맹 차원에서 중국 관련 사안에 대한 평가, 경험 및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정기적인 대화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도전과 기회를 해결할 수 있음.
 - 동맹국 간 대화체계라고 하더라도 군사적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역할과 한국, 미국 및 동맹국의 이익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해야 함.

- 마찬가지로 한미 양국은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음.
- 한국과 미국의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고려할 때, 아이디어와 계획,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은 각 국의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략적 의도와 계산을 확신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임.

※원문 <https://www.cfr.org/blog/us-rok-alliance-and-policy-coordination-toward-china>

■ The Inevitable Return of Muddling Along in North Korea (2019.3.5., Richard Fontaine, *The Atlantic*)

- 과거 미국은 북한의 핵에 대한 열망을 감소시키고 문제를 관리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
 - 북한이 비핵화를 꺼려하기 때문에 비군사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의 주요 걱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음.
 - 만약 압박과 정상회담으로 딜이 성사될 수 없다면, 북한과 미국의 실무진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 미 정책의 공공목표를 완전한 비핵화로 유지하는 동안 정책입안자들은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과 실험 중단의 연장, 그리고 최대한으로 감축 정도를 현실적인 목표로 인정해야 함.
-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억지(deterrence)’ 전략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내 합동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를 강화해야 함.
 - 평양의 엘리트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경제적인 방안이 제재에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미국은 북한체제의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해 기록하고, 북한주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촉진해야 함.
 - 사이버 공격을 포함한 비밀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들의 발전을 더디게 하는 한편, 실무급 회담은 지속해야 함.
 - 이러한 방안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가 제거하거나 북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나 억제할 수는 있음.
- 비록 지금 당장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더라도,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것 또한 미국의 가치 있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선택할 만한 옵션임.

※ 원문 <https://www.theatlantic.com/ideas/archive/2019/03/trump-cant-eliminate-north-koreas-nuclear-ambitions/584074/>

■ North Korea—Now What After Hanoi?

(2019.3.17., Wallace C. Gregson, *The National Interest*)

- 지난 25년간 미국이 북한과의 핵협상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목표와 계획 수정은 필요함.
 - 미국은 1990년대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DO)와 경수로 약속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협상과 개발 지원을 했음.
 - 그간 핵협상을 위한 노력들이 부족해서 비핵화 협상에 실패한 것은 아니며, 아마도 잘못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일 수도 있음.
- 북한은 1950년대부터 시작한 핵 프로그램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
 -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대내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억제를 통한 체제 생존이 포함되며, 대외적으로는 도발과 회유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주변국의 외교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비즈니스임.
- 김 위원장이 제재 해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미국이 앞서 선언한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과는 거리가 멀.
 - 이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을 회복해야 할 때임.
 - 만약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시설을 재건하고 있다면, 최소한 미국의 군사훈련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거나, 우리가 눈이 멀지 않았다는 명백한 신호를 보낼 수도 있음.
- 미국은 동맹국들 및 역내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안보 협의와 행동을 시작 및 유지해야 하며, 특히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지력이 안보협의사항에 포함되어야 함.
 - 또한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의 기존 협력 프로그램의 갱신을 통해 지역 전체에서의 불법적인 북한의 은행 활동을 제거해야 함.
 - 동시에 북한과도 대화를 지속하면서 현실적으로 대처해야 함.

※ 원문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north-korea%E2%80%94now-what-after-hanoi-47652>

■ Build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Whither the U.S.–South Korean Alliance?

(2019.3.22., Richard Sokolsky, *38North*)

- 남북한이 성공적으로 평화협정을 맺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라 동맹을 진화해야 함.

- 한반도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종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들이 많으나, 한국과 북한에게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것은 큰 이익이 있음.
 - 지역 패권을 위한 중국과 일본 간 잠재적 분쟁에 대한 우려와 중국과 러시아의 야망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 유지를 위해 미국이 필요함.
 - 북한은 미래의 보수적이고 호전적인 남한 정부를 대비하여 주한미군을 잠재적인 견제세력으로 둘 수 있음.
-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전술적이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이유가 있음.
 - 전술적 이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종전선언 요구를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하는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음.
 - 전략적 이유: 미국의 국가안보 기관의 멤버들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선언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오랜 논리적 근거를 박탈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변화된 지역 안보 환경에서 한미 안보관계 방향과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 책임에 관한 세 가지 전략적 전망은 다음과 같음.
 - 한반도에 대한 중국 패권은 크게 과장되어 있으며, 북한 위협이 끝나면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거나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
 -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남북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야 함.
 -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평화유지, 지역 안정화, 재해구난(HADR) 등 지역임무로 재조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논의는 중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한국 내 미군 태세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

※ 원문 <https://www.38north.org/reports/2019/03/rsokolsky032219/>

■ 더 알아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3.01.	No-Deal Summit: Will Trump and Kim Break Up or Make up?	Scott A. Snyder	CFR (<i>Nikkei Asian Review</i>)	https://www.cfr.org/blog/no-deal-summit-will-trump-and-kim-break-or-make
03.01.	For Kim, His Regime 'Ain't Broke' — So Why Fix It?	Paul R. Gregory	<i>The Hill</i>	https://thehill.com/opinion/national-security/432194-for-kim-his-regime-aint-broke-so-why-fix-it
03.01.	First Impressions: Understanding What Happened at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Ankit Panda	<i>The Diplomat</i>	https://thediplomat.com/2019/03/first-impressions-understanding-what-happened-at-the-us-north-korea-summit-in-hanoi/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3.01.	Misunderstanding Trump's "Failed" Hanoi Summit	Graham Allison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misunderstanding-trump%E2%80%99s-%E2%80%9Cfailed%E2%80%9D-hanoi-summit-45967
03.04.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at the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Jung H. Pak	The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03/04/the-good-the-bad-and-the-ugly-at-the-us-north-korea-summit-in-hanoi/
03.04.	Making Better Use of Lessons From Abroad For American Democracy	Thomas Carothers and Didi Kuo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2019/03/04/making-better-use-of-lessons-from-abroad-for-american-democracy-pub-78483
03.04.	The Hanoi Trump-Kim Summit: Personal Chemistry Fizzles	Trevor Findlay	Belfer Center	https://www.belfercenter.org/publication/hanoi-trump-kim-summit-personal-chemistry-fizzles
03.05.	Key Takeaways From the Second Summit Between President Trump and Kim Jong Un	Jung H. Pak, Ryan Hass, and Jonathan Stromseth	The Brookings Institution	https://www.brookings.edu/blog/order-from-chaos/2019/03/05/key-takeaways-from-the-second-summit-between-president-trump-and-kim-jong-un/
03.05.	After Hanoi: The Road Ahead fo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shish Kumar Sen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after-hanoi-the-road-ahead-for-the-united-states-and-north-korea
03.05.	Trump's Successful North Korea Summit	Theodore R. Bromund	The Heritage Foundation	https://www.heritage.org/asia/commentary/trumps-successful-north-korea-summit
03.05.	After Hanoi Summit: Rebuilding of Sohae Launch Facility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CSIS	https://beyondparallel.csis.org/hanoi-summit-rebuilding-sohae-launch-facility/
03.05.	The Hanoi Summit Was Doomed From the Start	Ankit Panda and Vipin Narang	<i>Foreign Affairs</i>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19-03-05/hanoi-summit-was-doomed-start
03.06.	What the Hanoi Summit Tells Us About North Korea's Nuclear Intentions	Christopher J. Watterson	<i>The Diplomat</i>	https://thediplomat.com/2019/03/what-the-hanoi-summit-tells-us-about-north-koreas-nuclear-intentions/
03.07.	Soha Launch Facility Update: North Korean "Snapback" After Hanoi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CSIS	https://beyondparallel.csis.org/sohae-launch-facility-update-north-korean-snapback-hanoi/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3.07.	South Korea Can Save the Nuclear Talks After Hanoi, Back to Seoul	John Delury	<i>Foreign Affairs</i>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north-korea/2019-03-07/south-korea-can-save-nuclear-talks
03.08.	Everything Should Be on the Table in Korea	Doug Bandow	<i>Foreign Policy</i>	https://foreignpolicy.com/2019/03/08/everything-should-be-on-the-table-in-korea/
03.10.	Ending U.S. Risk Exposure in Korea	Ted Galen Carpenter	CATO Institute (<i>Real Clear World</i>)	https://www.cato.org/publications/commentary/ending-us-risk-exposure-korea
03.11.	Is North Korea Preparing for a Satellite Launch? Here's What We Know	Ankit Panda	<i>The Diplomat</i>	https://thediplomat.com/2019/03/is-north-korea-preparing-for-a-satellite-launch-heres-what-we-know/
03.11.	The Hanoi Summit: A Point on a Long North Korean Foreign Policy Line	Mark Tokola	NBR	https://www.nbr.org/publication/the-hanoi-summit-a-point-on-a-long-north-korean-policy-line/
03.12.	The Hidden Components of the North Korean Military Challenge	Michael J. Mazarr and Gian Gentile	RAND Corporation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www.rand.org/blog/2019/03/the-hidden-components-of-the-north-korean-military.html
03.13.	Where Do U.S.-North Korea Relations Go in the Aftermath of the Hanoi Summit?	Bruce W. Bennett	RAND Corporation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www.rand.org/blog/2019/03/where-do-us-north-korea-relations-go-in-the-aftermath.html
03.13.	The China-North Korea Relationship	Eleanor Albert	CFR	https://www.cfr.org/backgrounder/china-north-korea-relationship
03.15.	Picking Up the Pieces After Hanoi	Richard N. Haass	Project-Syndicate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dealing-with-north-korea-after-hanoi-summit-failure-by-richard-n-haass-2019-03
03.15.	It's Not Personal. It's Just Diplomacy.	Robbie Gramer and Michael Hirsh	<i>Foreign Policy</i>	https://foreignpolicy.com/2019/03/15/its-not-personal-just-diplomacy-trump-kim-jong-un-north-korea-negotiations-history-diplomatic/#
03.18.	John Bolton's Great Game of Nuclear Chicken	Daniel L. Davis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feature/john-boltons-great-game-nuclear-chicken-47962
03.19.	Sohae Launch Facility Update: Quite Since Early March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CSIS	https://beyondparallel.csis.org/sohae-launch-facility-update-quiet-since-early-march/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3.22.	Trump's Reversal of North Korea Sanctions Sends a Dangerous Signal	Ashish Kumar Sen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trump-s-reversal-of-north-korea-sanctions-sends-a-dangerous-signal
03.22.	Trump Offers Clumsy Olive Branch to North Korea	Robbie Gramer	<i>Foreign Policy</i>	https://foreignpolicy.com/2019/03/22/trump-offers-clumsy-olive-branch-north-korea-sanctions-treasury-bolton-policy-reversal-on-twitter-pyongyang-nuclear-talks/
03.24.	The Window of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Isn't Closed	Ferial A. Saeed	<i>The National Interest</i>	https://nationalinterest.org/blog/korea-watch/window-negotiation-north-korea-isnt-closed-48642
03.25.	North Korea's No. 17 Explosives Factory: No Significant Activity	Joseph Bermudez and Victor Cha	CSIS	https://beyondparallel.csis.org/north-koreas-no-17-explosives-factory-no-significant-activity/
03.26.	South Korea is a Hesitant, but Friendly, U.S. Ally in the Indo-Pacific	Scott A. Snyder	CFR	https://www.cfr.org/blog/south-korea-hesitant-friendly-us-ally-indo-pacific
03.27.	Trump and Kim Need to Go Small	Christopher Green	<i>Foreign Policy</i>	https://foreignpolicy.com/2019/03/27/trump-and-kim-need-to-go-small/
03.27.	Mike Pompeo Is Not Making Diplomacy Great Again	Richard Sokolsky and Aaron David Miller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i>Politico Magazine</i>)	https://carnegieendowment.org/2019/03/27/mike-pompeo-is-not-making-diplomacy-great-again-pub-78698
03.28.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After the Second Summit	Victor Cha	CSIS	https://beyondparallel.csis.org/u-s-policy-toward-north-korea-after-the-second-summit/

3. 중국

■ 미국과 북한은 현 시점에서 상호 전략적 오판을 경계해야

(환구시보 논평, 2019.03.11.)

(美朝要警惕在现阶段彼此战略误判, 环球时报 社评, 2019.03.11.)

- 미국과 한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 재개 가능성을 연일 보도
 -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실망감 표시
 -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대립 국면 진입의 가능성과 우려 제기
- 당분간 미국과 북한은 서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나,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경거망동을 피해야 함.
 - 볼튼은 미국의 대북 감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고, 북한은 미국의 군사위성과 상업위성이 자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위성감시에 대한 많은 경험 축적
 - 북한은 대북감시를 통해 미국의 불안감이 고조되기를 원할 수도 있음.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다음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
-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 정세 완화의 수혜자로 2017년 극심한 대립 국면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 특히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결 국면으로 회귀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롭지 않음
- 양국 모두 마지노선에 대한 판단이 있겠지만, 실제 상황에서 경솔하게 대응해서는 안될 것
 - 냉철한 사고를 유지하고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
 -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성과없이 종료되었지만, 양국의 태도를 볼 때 추후 협상의 여지는 있음.
 - 양국은 상대방에 대한 오판과 정세를 후퇴시킬 만한 상황을 경계해야 할 것

※ 원문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3/14522627.html?agt=15422>

■ 스마트 제재 이후 유엔 대북제재의 경제 효과 평가

(리팅팅, 현대국제관계, 2019년 No.2) (李婷婷, “聪明制裁”之后联合国对朝制裁的经济效果评估, 现代国际关系, 2019年 第2期)

- 2016년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의 통상적 ‘스마트 제재’(smart sanctions) 또는 ‘표적제재’(targeted sanctions)를 넘어섰음.
 - 스마트제재는 핵 개발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경제 활동 및 행위자에 한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과 윤리성 추구
 -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 속도와 강도가 심화되었다는 판단 하에, 기존 스마트 제재의 원칙에서 벗어나 핵 개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경제 활동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
-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 결과 북한의 무역수지와 외화수지는 악화되었으나, 생산, 가격 등 내부 경제지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 북한의 공업제품과 자원 수출을 통한 외화벌이가 핵 개발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결과 북한의 무역 수지가 크게 악화되었고, 북한 근로자의 해외송출과 대북 투자 제한으로 외화 수지도 타격을 입었음.
 - GDP, 달러와 쌀 가격 등을 통해 볼 때, 결과적으로 고강도 대북 제재 효과는 내부 실질 경제의 가격과 생산 측면에서 제한적이었음.
 - 그 원인은 내부 경제정책 효과, 인력, 에너지 등 생산요소의 적극적 투입, 기후 등의 영향에 따른 식량 증산 등이 완충작용을 한 것에서 찾을 수 있음.
-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의 북한 경제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은 2018년 북한의 태도 변화와 향후 비핵화 전망 등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함.
 - 2018년 초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태도변화의 원인을 유엔 제재 강화에 따른 경제 악화로 보는 것은 단편적인 판단. 고강도 제재가 실제로 북한 당국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했으므로 북한의 태도 변화는 핵경제 병진 노선의 추진과 군사안보적 압박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적절
 - 만일 북한 태도 변화의 원인을 제재로 인한 경제 악화에서 찾는다면 경제 호전 이후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지만, 그 원인을 북한의 국가 발전 전략과 안전 보장 확보에서 찾는다면 경제가 호전된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
 -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 여론은 “중국책임론”을 제기하였으나, 중국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북한이 가진 내부적 완충능력과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

※ 원문 <http://mall.cnki.net/magazine/magadetail/XDGG201902.htm>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2019. No.1	동북아 지정학 환경 변화와 일대일로 추진의 전략적 기회 〈东北亚地缘环境变化与 一带一路推进的战略机遇〉	황런웨이 (黄仁伟) 보용 (博勇)	국제관계연구 (国际关系 研究)	http://mall.cnki.net/magazine/magadetail/GGXY201901.htm
2019. 3.7.	이탈리아 일대일로 참여에 대한 미국의 방해는 도의를 저버리는 것 〈美缺少拦意大利连 “一带一路”的道义〉	-	환구시보 논평 (环球时报 评论)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9-03/14484172.html?agt=15422
2019. No.4	미중 전략경쟁과 중국 주변국 군사협력 〈中美战略博弈与中国周边 军事合作〉	장팡 (张芳)	World Affairs (世界知识)	http://mall.cnki.net/magazine/magadetail/SJZS201906.htm
2019. No.6	북한식 “전용열차 외교”의 과거와 현재 〈朝鲜式“专列外交”今昔〉	장동밍 (张东明)	World Affairs (世界知识)	http://mall.cnki.net/magazine/magadetail/SJZS201906.htm

4. 일본

■ ‘비핵화’의 구조적 요인에서 고찰하는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이후 (아키야마 노부마사, 국제문제연구소 전략 코멘트(No.8) 2019.3.12.) (「非核化」の構造的要因から読む米朝首脳会談の決裂と今後) (秋山信将, 国問研戦略コメント(No.8) 2019.3.12.)

- ‘비핵화’의 해석을 둘러싼 차이와 딜의 균형
 -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이 최종 목표로 완전한 비핵화를 유지하면서도 단계적 비핵화 거래를 용인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와 경제제재 해제를 거래하는 ‘빅딜(big-for-big)’을 제안하였고 북한은 이를 거부
 - 북한이 ‘빅딜’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현존하는 핵무기 능력을 온존하고, 현 단계에서는 이를 폐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분석일 것. 2019년 3월 4일 IAEA 이사회는 영변의 흑연로는 수개월간 중지되어 있었지만 경수로의 활동을 계속했다고 보고함. 북한의 계획은 영변지역에 있는 모든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폐쇄하는 지역과 남기는 시설을 구별하는 것이었다고 의심되는 부분임.
 - 트럼프 대통령이 ‘분강’의 농축시설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이 협상을 계속할 충분한 대처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시설을 은폐하는 것, 즉 일정 정도의 핵무기 제조능력을 온존시키려 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북한이 노리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라 영변지구에 있는 기존 시설의 폐쇄를 가지고 ‘비핵화’라고 하는 이른바 ‘상징적 비핵화’였다는 것을 의미
 - ‘상징적 비핵화’는 핵계획의 전부를 밝히지 않고 일부 능력을 폐기하는 상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이고, 상대의 위협인식이 저하 되도록 노력하면서도 당분간은 핵능력의 온존을 꾀하는 것을 의미.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 추구했던 핵군비 관리체제와 같은 관계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확립하고 이를 통해 안전보장과 체제 보장을 담보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 북한은 영변의 폐기를 IAEA가 아니라 ‘미국’의 검증 하에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미국과 소련의 핵군비 관리체제의 “신뢰하지만 검증한다(trust but verify)” 원칙에 따라 핵보유국 간의 신뢰조성을 모방한 수법을 북한이 원했다는 것임.
- 협상 진전을 위한 3조건
 - 첫 번째 조건은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북미가 합의하는 것. 이는 미국의 ‘비핵화’ 어프로치 방식과도 관계가 있음. 원샷의 ‘빅딜’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칙에 비추면 바람직한 것이지만 현실적 전략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따라서 비핵화를 목표로 유지한다면 단계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음.

- 둘째, 거래가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함. 단계적 어프로치를 구사한다는 것은 미국 내정, 북한 내정, 동맹 정치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셋째, 비핵화 조치의 이행과 그에 대한 보상 간의 적절한 균형점과 실시 타이밍을 찾아야 함. 이는 곧 비핵화와 인센티브의 틀을 디자인하는 문제임. 이러한 틀의 요건은 북한이 1)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미국의 결의를 이해시키고, 2) 프로세스를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보상과 안전 보증이자, 3) 프로세스에 지속 관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의 과도하고 일시적인 보상이 아니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동맹 내 정치의 중요성
 -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일 동맹국 간의 서로 다른 위협인식이 확연히 드러났음. 한국은 남북 유화, 일본은 북한 핵무기 능력의 무력화, 미국은 협상 타결을 우선시했음. 이러한 우선순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조정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 앞으로 동맹의 방식, 미국의 관여, 향후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긴밀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임.

※원문 http://www2.jiia.or.jp/RESR/column_page.php?id=327

■ **기준은 지켰지만 트럼프 '애드립' 외교의 위험성 (다카하타 아키오, 동경재단 정책연구소 2019.3.20.) (一線は守ったものの...トランプ「アドリップ外交」の危うさ) (高畑昭男, 東京財団政策研究所 2019.3.20.)**

- 허상으로 끝난 '빅딜'
 -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 외교에서 자신의 장기인 거래 능력을 발휘하여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교환하는 '빅딜'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과신한 것 같음. 그러나 볼튼, 폼페이오도 북한이 일괄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고 북한과 미국은 실무차원에서 충분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정상회담에 들어갔음.
 -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스스로의 이미지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음. 북한 노동신문이 정상회담의 결렬 소식을 1주일 이상 지나고 나서 보도한 것에서 북한의 낙담과 실망을 알 수 있음.
 - 세 번째 정상회담이 재개될지 현재 백지상황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관계를 중재하고 제재완화를 기대했던 한국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됨.
 -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대미전략을 전개할 것인지,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야 함.

- 트럼프 외교의 리스크
 -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안이한 타협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일본인 납치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만 미국 국내의 평가는 좋지 않음. 예를 들어 독재자에게 근거도 없이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고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애드립 외교에 치중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주장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음.
 - 북한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좋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오산으로 북미관계가 혼란에 빠졌으며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생산도 중지되지 않았음.
- 핵과 미사일의 증식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 중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 개인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 가능한 것임.
 - 최대의 문제는 핵과 미사일 증식에 그 어떤 제약이 걸려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임.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켜 원활하게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전략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음.

※ 원문 <https://www.tkfd.or.jp/research/detail.php?id=3051>

■ 제2차 북미정상회담, 전면적 실패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오카자키 연구소, WEDGE Infinity 2019.3.21.) (第2回米朝首脳会談、全面的な失敗とはいえない) (岡崎研究所, WEDGE Infinity 2019.3.21.)

- 하노이 회담의 결렬에 대해 전 세계가 놀라움을 표함.
 -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패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음. 정상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실무 레벨의 협의를 저해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음.
 - 그러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전면적으로 실패했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존재함.
 - 첫째, 트럼프 대통령이 능숙하게 정치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렇지 않았다면 협상은 대실패로 끝났을 터인데 트럼프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외교를 했다는 평가도 있음.
 - 둘째, 북한문제의 대립논점이 북미 간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음. 김정은 위원장은 문제의 엄중함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임. 비핵화의 정의와 쌍방 주장을 둘러싼 차이점이 명확해진 것은 아주 중요함.
 - 셋째, 일부 시설의 폐쇄와 ICBM 폐기의 거래에 응하지 않았음. 만약 이를 받아들였다면 미국과 동맹국의 안전보장을 분열시키고 동맹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것임.

- 넷째, 미국은 모든 핵·미사일의 폐기 이후 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생각을 북한에게 제시하고 그랜드 바겐을 시도했음. 실시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최종 목표를 비롯한 기본적 비전을 쌍방이 일괄 합의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과 관련해 다른 비밀농축시설의 존재를 지적하여 북한을 밀어 붙였음. 미국의 첩보 능력에 북한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
- 하노이 정상회담은 1986년의 미소 레이카비크 회담과 유사함.
 -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는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1986년 미소 레이카비크 회담처럼 “비핵화를 향한 중요한 첫 걸음이 된 회담으로서 역사는 기억할 것”이라고 평했음.
 - 고르바초프의 ‘아름다운 서한’을 받고 레이건은 레이카비크에 향했지만 회담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음. 이후 소련이 입장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1년 이후 INF 핵군축 합의에 도달함.
 - 레이카비크 회담 이후 소련은 2개월에 걸쳐 정책을 재점검했음. 미국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협상이 가능한 시기는 그리 길지 않음. 미국은 이용호 또는 김영철의 방미를 요구하고 협상을 지속해야 함. 필요하다면 일본 등이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모색해야 함. 그랜드 바겐에는 북일 국교정상화 등 모든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미중의 소통도 중요하고 김정은이 협상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원문 <http://wedge.ismedia.jp/articles/-/15650>

■ 더 읽어보기

일자	제목	저자	출처	URL
03.02.	북미협상 결렬로 '미소 짓는 중일'과 '당혹스런 한국': 일본은 최악의 악몽은 피했다. 〈米朝交渉決裂で「笑う日中」と「大慌ての韓国」－日本にとって最悪の悪夢は回避された。〉	다니엘 스나이더 (ダニエル・スナイダー)	동양경제 (東洋経済)	https://toyokeizai.net/articles/-/268953
03.07.	일본의 중요성을 잃어버린 한국 〈日本の重要性を見失った韓国〉	木村幹 (기무라 칸)	뉴스위크 일본판 (ニュースウィーク日本版)	https://www.newsweekjapan.jp/kankimura/2019/03/post-2.php
03.13.	【구보타 루리코의 한반도 위치】서투른 한미관계 합동연습종료의 부담은 일본으로 〈【久保田るり子の朝鮮半島ウォッチ】お粗末な米韓関係 合同演習終了のツケは日本に〉	구보타 루리코 (久保田るり子)	산케이신문 (産経新聞)	https://www.sankei.com/world/news/190313/wor1903130003-n1.html
03.17.	(사설) 북한 결의안 땀질식 대처로는 길을 열지 못할 것 〈(社説)北朝鮮決議案 場当たりでは道開けぬ〉	-	아사히 신문 (朝日新聞)	https://www.asahi.com/articles/DA3S13937078.html
03.17.	社説：北朝鮮の人権問題 決議は交渉の道具なのか 〈사설: 북한 인권문제 결의는 협상 도구인가?〉	-	마이니치 신문 (毎日新聞)	-

Ⅲ

북한 관련 동향

1. 북한 주요 일지(3.1.~31.)

일자	대내	대외
03.01. (금)	[김정은 공개활동] 북미정상회담차 베트남 방문(2/23~3/2) - 응우옌푸쫑(주석), 응우옌쑤언푹(총리), 응우옌티킴응언(국회의장) 회담(3/1) - 호찌민 전 국가주석 묘·영웅열사추모비에 헌화(3/2) 3.1인민봉기 100돐기념 평양시 보고회(인민문화궁전)	[중국] 외무성 대표단 방중(2/28~3/5) - 단장: 리길성(외무성 부상) - 왕이(중국 외교부장), 공현우(중 외교부부장) 면담(2/28) [러시아] 조선노동당 대표단 방러(~3/8) - 단장: 한만혁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 목적: '김일성 첫 소련공식방문70주년, 북러 경제·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0주년'에 즈음한 사진전시회 참가 [러시아] 북 국가관광총국, 러시아 관광국 간 '관광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양해문' 조인(모스크바)
03.02. (토)	식수절	[러시아] 정부경제 대표단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9차 회의 참가 방러(~3/9) - 단장: 김영재(대외경제상)
03.04. (월)	4개 단위에 '사회주의애국심' 칭호 수여(최초) - 봉화화학공장·은흥협동농장·단산협동농장·월릉협동농장 - 전승혁명사적관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	
03.05. (화)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남도 현지요해 - 황해남도 물길 2단계 공사장·해주트랙터 부속품공장·해주농기계공장 - 제34차 평양시 과학기술축전(~3/13, 평양역전 백화점)	[쿠바] 北-쿠바 단결위원회 연차회의(평양) - 참석자: 김승두(北-쿠바 단결위 위원장·교육위 위원장), 서호원(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주북 쿠바 대사(헤수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세 소톨롱고) 등
03.06. (수)	- 제2차 전국당초급선전일꾼대회(~3/7, 평양) - 김기남(당 고문) '서한' 전달, 리영식(당 제1부부장) 보고	
03.07. (목)		[국제] 농업근로자동맹 대표단 '식량 주권과 농민의 권리에 관한 국제회의' 참가(네팔, ~3/17) - 단장: 길상봉(농근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03.08. (금)	'3.8국제부녀절(3.8, 세계 여성의 날)' 109돌 기념 중앙보고회(인민문화궁전)	

일자	대내	대외
03.09. (토)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24호(2019. 3.9.)' 발표 -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03.10. (일)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 [김정은 동행] 제14기 대의원 선거 참가 - 제10호구 제40호분구 선거장	
03.11. (월)		[러시아] 외무성 대표단 '北-러 외무성 부상급 협상과 北-러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0돌' 행사 참석(~3/18) - 단장: 임천일(외무성 부상) - 이고리 모르굴로프(외무성 부상) 협상 및 '2019-2020년 교류계획서' 조인(3/14) [유엔] 김성(주 UN 상임대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편지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총회' 북한 주최 제재 관련
03.12. (화)	- 박봉주(내각 총리) 현지요해 - 평양 제약공장·평양 치과위생용품공장, 보산제철소, 장산광산, 람정광산	
03.15. (금)	전국 청년동맹 5대 교양해설 대경연(~3/20,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	
03.16. (토)		[러시아] 연방평의회 대표단 '김일성 첫 소련공식 방문 70주년·조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70주년'을 기념 방북(~3/21) - 단장: 올레그 멜니첸코(로조친선의원단 위원장) - 임천일(외무성 부상)과 외무성 부상급 협상 및 '2019-2020년 교류계획서' 조인 [스위스] 외무성 대표단 방북(~3/19) - 단장: 라파엘 내겔리(아시아-태평양지역 담당 국장)
03.18. (월)	모범적인 청년동맹 초급선전일꾼들의 경험토론회 (청년중앙회관)	
03.20. (수)	-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북도 여러 단위 현지요해 - 갈종합농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 신의주방직공장과 신의주시 토성협동농장 - 봄철 전국 신발전시회-2019(~3/26, 평양역전 백화점)	
03.22. (금)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소집 및 공시 발표(4/11 예정) - 태양절 경축 전국서예축전(국제문화회관 미술전시장) 송화미술전람회(민예전람실)	

일자	대내	대외
03.24. (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창립 70주년 기념보고회(평양)	
03.25. (월)		[시리아] 바야스 소년선봉대 대표단 방북 - 단장: 무함마드 예자트 아라비 카트비(위원장) - 박철민(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위원장) 회담(3/27) [독일] 연방의회 의원 일행 방북(~3/28) - 방문객: 지그마르 하르트무트 가브리엘(사회민주당 前 위원장) 및 일행 - 리수용(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담화(3/25) - 리용호(외무상) 담화(3/26) - 세계 결핵의 날(3/24) 행사(인민문화궁전)
03.26. (화)	제13차 전국농업근로자농구경기(평양 청춘거리 농구경기관 등, ~3/29)	[라오스] 조선노동당 대표단 방문(~4/1) - 단장: 리수용(당 부위원장) - 분당 워라(주석), 판감 위파완(부주석) 담화 및 '조선노동당-라오스 인민혁명당 사이의 교류 및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3/28) - 통론 시술릿(정부수상) 담화(3/29)
03.27. (수)	[김정은 동향] 조선인민군 제5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석(5월1일경기장)	
03.28. (목)	올림픽위원회 총회(인민문화궁전)	
03.29. (금)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51호' 발표 -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정령	
03.30. (토)		-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대표단 세계 민주청년연맹 총이사회 회의 참여(베네수엘라) - 단장: 김성일(청년동맹 부위원장)

2. 북한언론 주요 사실 및 논평

〈대내〉

■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또다시 상봉하시고 회담하시였다 (노동신문, 3/1)

- 3월 1일자 노동신문은 1~2면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2면에서는 양 정상에 향후에도 긴밀한 대화와 새로운 상봉을 약속하였다고 보도
 - 기사는 양 정상이 싱가포르공동성명 이행 과정을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노력이 북미 간 적대관계의 근본적 전환에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고 설명
 - 또한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계기이며 향후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생산적 대화들을 이어가기로 양 정상이 합의했다고 소개

■ 민족의 자주권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반일애국항쟁 (노동신문, 3/1)

- 3월 1일자 노동신문은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하여 자주통일 실현 및 일본의 전쟁범죄 결산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평을 게재
 - 논평은 3·1운동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대한 인민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며, 3·1운동을 통해 “인민의 견결한 반일정신과 자주적기상을 시위하고 우리 나라 반제민족해방투쟁력사에 뚜렷한 한 페이지를 남기였다.”고 설명
 - 또한 일본이 오늘날까지도 막대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과거죄악의 총결산이라는 역사적 책임”을 더는 다음 세대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

■ 모두다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우리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 (노동신문, 3/10)

- 3월 10일자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일을 기념하여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사설을 발표
 - 사설은 선거일이 “정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절감”하고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져나갈 신념과 의지를 역세게 가다듬는 날”이라고 설명

- 또한 “찬성의 한표한표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철석같은 신념”이 깃들어 있으며, 선거를 통해 “공화국의 불패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해야 한다고 강조

■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공화국정권은 필승불패이다 (노동신문, 3/14)

- 3월 14일자 노동신문은 제14기 대의원선거 결과를 설명하고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설을 발표
 - 사설은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선거에 참여하여 후보자들에게 100% 찬성 투표하였고, 이는 “공화국정권에 대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심의 표시”이자 “열렬한 애국심의 거세찬 분출”이라고 설명
 - 또한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허물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으므로 인민정권기관들은 사상교양사업을 통해 인민들이 “적들의 마수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주장

■ 저작권보호에서 나서는 문제 (노동신문, 3/19)

- 3월 19일자 노동신문은 저작권의 정의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기사를 게재
 - 기사는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남에 따라 세계적으로 저작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보호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
 - 또한 표절과 무허가리용, 발표권침해 등 저작권 침해의 유형과 방식을 설명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

〈대외〉

■ 일본의 역사적죄악을 총결산하고 피의 대가를 받아낼 것이다 (노동신문, 3/2)

- 3월 2일자 노동신문은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성명을 소개
 - 성명은 일본이 3·1운동 무력진압뿐 아니라 위안부, 강제연행, 강제노역 등 인권 침해 행위와 역사왜곡, 경제수탈 등에 책임이 있지만 이를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 범죄를 왜곡·미화하고 있다고 비판
 - 성명은 “일본은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끼친 모든 피해와 고통에 대하여 똑바로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고서는 결코 넘어갈수 없다.”고 일본이 과거 범죄에 대해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

■ 남조선과 미국 조선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새로운 합동군사연습 개시 (조선중앙통신, 3/7)

- 3월 7일자 조선중앙통신은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는 논평을 게재
 - 논평은 새로 실시되는 《동맹》 연습이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의 명칭을 바꾼 것이라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적대관계 해소와 군사적 긴장 완화를 약속한 북미공동성명·남북 각종 선언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주장
 - 또한 한미군사훈련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거래와 국제사회의 염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

■ 세기를 이어 발전하는 조로친선협조관계 (노동신문, 3/20)

- 3월 20일자 노동신문은 ‘조로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는 기사를 게재
 - 기사는 1949년 3월 17일 체결된 양국 간 협정이 두 나라의 관계에서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으며, 이후 서로에게 유익한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가 끊임없이 진행되었다고 설명
 - 북러공동선언(2000년), 북러 모스크바선언(2001년),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2002년, 2011년) 등을 통해 구축된 두 나라 간의 친선관계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북러 친선관계를 향후에도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당과 인민의 확고한 의지라고 설명

■ 명백히 드러난 《한미실무팀》의 실체 (우리민족끼리, 3/21)

- 3월 21일자 우리민족끼리는 3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워킹그룹 회의 결과를 비판하는 논평을 게재
 - 논평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북협력 관련 여러 사항을 요청했으나 이산가족 화상상봉 및 영상편지 교환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의 반출만 승인받았으며,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매년 “강박과 구결”로 운영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철저한 주종관계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
 - 논평은 한국이 한미워킹그룹 및 한미동맹 해체 투쟁을 통해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

■ **조선외무성 대변인 에스빠냐의 해당 당국이 조선대사관 습격사건수사를 끝까지 책임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3/31)**

- 3월 3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2월 22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관한 논평을 게재
 - 논평은 외교대표부에 대한 테러행위는 국가주권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고 국제법 유린이라고 주장
 - 또한 금번 테러 사건에 대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반공화국 단체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각종 추측에 대해 주시하고 있으며, 사건발생지인 스페인 당국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

※ 일러두기 ※

- * 연구동향(한국·미국·중국·일본·북한)의 경우 해당자료의 홈페이지 업로드(또는 입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
- * 각국의 상황 및 자료 입수시기에 따라 분량상의 차이 발생 가능